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임명 정지... 재판관 전원일치 문형배·이미선 퇴임 이틀 앞두고 가처분 인용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이완규 후보자 함상훈 후보자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이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본안심리 결과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한 대행 대선 출마론에 정치권 ‘술렁’

민주 “내란 책임져야”... 국힘은 내부 의견 갈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기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 권한대행이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내고, 당사자인 한 권한대행도 출마에 선을 긋지 않으면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조기대선을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거세 이를 극복하고 도전에 나설지 한 권한대행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등판론이 커지는 배경으로는 경제·통상·외교 전문가는 점과 그가 보수 진영의 열세 지역인 호남(전북 전주) 출신이라는 점 등이 꼽힌다. 영남 기반의 국민의힘이 호남 후보를 앞세우는 전략을 통해 중도층 공약을 통해 외연을 확장한다면 민주당과 겨뤄볼 수 있다는 게 차출론의 배경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 출마를 지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권한대행이 다음 달 3일

국무총리에서 사퇴해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고, 이후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와 단일화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차출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불나방 같은 ‘똥다방’ 후보들은 대한민국 헌대사에 차고 넘친다”며 “국민의힘 당권과 교임에 넘어가 이용당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차출론에 기대어 대선 놀음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지금은 대권을 꿈꿀 때가 아니라 내란 공범으로서 책임을 질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 발끈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한 권한대행 출마론에 대해 “우리 당 내부를 흔들려는 술책”이라고 했고, 한동훈 후보는 “불공정”, 나경원 후보는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부미헌기자 bu8385@ihalla.com

李 싱크탱크 ‘성장파 통합’ 출범

관료·교수 중심 구성... ‘기본소득’엔 거리두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파 통합’이 16일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땃을 올렸다.

성장파 통합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열었으며 행사장에는 각계에서 550여명이 참석했다.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성장파 통합의 장기적인 목표다.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세계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전략’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가 경제성장을 강조하면서 중도층 공약에 나서는 상황과 맞물려 싱크탱크 역시 성장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을 지낸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공공은 공공대로 열심히, 민간도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는 효과적이고 신속 집행이 가능한 공급정책을 하겠다”

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로 꼽혔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이를 도입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어 눈길을 끌었다. 유 대표는 “지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우선순위로 봐도 이를 먼저 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장파 통합에는 유종일, 허민 대표 외에도 각계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을 배제하고, 관료와 교수 중심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국힘 ‘4강 경쟁’ 개시... 탄핵 찬반 주목

반탄파 합동 가능성... 찬탄파 ‘중도 확장성’ 부각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의 첫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16일 경선 후보에 등록한 11명의 서류 심사를 거쳐 8명의 1차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에서 당 소속 주자들 중 선두권인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가 4강에 진출하고, 한자리를

두고 안철수·나경원 등 다른 후보들이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1차 경선에서 주목받는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이 꼽힌다.

반탄파(탄핵소추 반대파)인 김

후보, 홍 후보, 나 후보와 찬탄파(탄핵소추 찬성파)인 한 후보와 안 후보 간 전선이 형성되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반탄파의 합종연횡 가능성도 거론된다. 2차·최종 경선을 앞두고 당심을 공략하기 위해 찬탄파를 향한 합동 공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홍 후보는 경선에서 탄핵 찬반 논쟁을 크게 키우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탄핵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았던 만큼 탄핵 찬반을 두고 경선이 진행되면 본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찬탄파는 비상계엄의 부당성과 중도층 탄핵 찬성 여론을 토대로 반탄파의 부족한 중도 확장성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 대행 출마론을 두고는 김 후보와 나머지 후보 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홍 후보와 한 후보, 나 후보 등은 한 대행의 출마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김 후보와 한 대행의 단일화 시나리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청문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쪽지에 대해 “초현실적인 상황이라 열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왕방울 은행나무

성목 판매 (200본)

- 공원 조성용(열매 냄새 없음)
- 수령(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음)
- 재래종 보다 열매는 2배 큼

문의 : 010-4693-1698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외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